



특별기고



김낙규

가톨릭대 외과교수·대원3동 거주

1951년 어느 일요일 아침, 일지리를 찾아 부산에 온 나는 대청동 40제단 아래에서 카키색 군복을 입은 외국인 한 명을 발견했다. 'Sweden' 마크가 붙은 군복을 입은 그는 카메라를 렌즈 세팅하고 있었다. 당시 시골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그에게 다가가 "지금 몇 시냐"고 말을 건넸고 그도 호기심에 나를 받아줘 우리는 인근 다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다. 만그림이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 인연으로 나를 스웨덴 적십자병원에 취직시켜 주었다.

스웨덴적십자병원은 당시 서면 부산상업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운동장 대부분에 전막을 치고 후송 군인 일부가 입원해 있

었다. 전막 중 하나는 PX로 사용되고 있었다. 본관 뒤쪽 부속건물 일부는 병원본부가 있었고, 나머지 부속건물에 스웨덴 의사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병원 정문은 둥근 아치로 꽤 높았고 'Swedish red-cross field Hospital(스웨덴적십자병원)'이란 글자와 함께 스웨덴기와 적십자기가 팔색이고 있었다. 병원은 초기에는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에서 휴전협정 이후에는 '스웨덴적십자병원' 다음에는 '부산스웨덴병원'으로 여러 번 명칭이 바뀌었다.

우연한 기회로 병원 근무

내과 과장인 닥터 하스트는 스웨덴 사람으로 계급은 대위였고 나중에 소령 계급장을 달았다. 외과과장은 노르웨이 출신으로 닥터 부어르 대위였다. 정전 이후에는 한 국인을 진료하는 구호병원 역할을 맡아 아침 일찍 정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당시 헐벗고 굶주려 결핵환자가 태반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병원에서 무료 진료 혜택을 받았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에서 보낸 6년

(1951~1956년)

1956년에는 학교를 지방 당해 교사로서 수업을 해오던 부산상고의 환수 요청에 못 이겨 부산국립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로 병원을 이전하였다. 이곳은 미군 부대가 주둔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운동장 바다 쪽에는 반원 모양의 펜셋막사가 즐비했다. 본관 건물은 짓다만 건물처럼 허술해 보였다. 그나마 부지가 넓어 한국 직원들도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수산대 부근에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환자가 병원에 오기가 힘들었는데 아침에는 정문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저 멀리 바라보이면 UN모자는 그때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병원에서 묘지까지는 건물 없는 허허들만으로 밤이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요란했다.

외국 의료진이 등록금 내주기도

나는 엑스레이실에서 근무할 당시 미국산 피커60피커를 사용했는데 스웨덴병원이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그 장비를 부산대학병원에 기증하고 떠났다. 훗날 내가 부산대학병원 엑스선과에 취직했을 때 그 장비를 다시 만나 감회가 깊었다. 엑스레이실에는 독일인 여의사 닥터 그라우만이 있었

는데, 그녀는 주한서독병원(당시 부산여고 자리) 엑스레이실에 근무하던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다.

역사의 한 장 함께 채워 영광

병원에는 나처럼 가난한 고학생들이 많이 근무했다. 대학에 진학한 나는 학기등록금 낼 때가 되었는데 부어르 박사가 나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두 번이나 봉투를 건네줬다. 1956년 여름방학 때 나는 심한 위궤양에 시달렸는데 하스트 박사는 약물치료를 권했지만 부어르 박사의 집도 아래 수술을 받았다. 나는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료진들을 너무 만났기에 수술 사실을 고향집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결코 잊지 못할 은인이다. 훗날 내가 정년퇴임 후 북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시내에서 그들을 만날 것만 같았다. 부어르 박사는 병원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몇 년을 근무했다.

스웨덴병원은 1957년 4월 6년 여 동안 야전병원과 구호병원의 임무를 끝내고 본국으로 철수했다. 이 때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난 친구가 있었고 동성동본으로 국내에서 결혼이 불허돼 스웨덴으로 '사랑



김낙규(중앙) 씨와 동료 직원들이 1950년대 초반 스웨덴 적십자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의 망명'을 떠난 커플도 있었다. 직장을 잃은 나는 부산여고에 있던 서독적십자병원 엑스레이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게 인연이 되어 훗날 부산대병원 방사선과로 자리를 옮겨 보건직 국가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일했다. 반세기 넘게 잊고 있던 기억을 지난날 부산남구신문에 실린 '스웨덴적십자병원' 특집 기사를 통해 반추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이들과 함께 역사의 한 장을 채울 수 있어 영광스럽고 아련하다.



<246>



■ 임찬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4> 설득의비법(2)

주관식보다 '객관식' 질문이 효과적

꼭꼭 찌는 여름이다.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계획할 때부터 휴가지에 가서 도움 될 수 있는 유익한 스파치를 배워보자. 누구랑 갈까, 어디로 갈까, 뭐때로 갈까. 휴가를 가려고 하면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화를 조금만 달리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즐겁게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먼저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구 한명이 안 간다고 할 때는 선택을 유도하는 스파치가 좋다.

"너 여름휴가 갈래?"가 아니라 "여름휴가로 제주도 가 좋겠어? 강릉이 좋겠어? 네 어디가 좋겠어?"라고 말을 하면 "이미 네 가아되는데 어디로 갈 지만 결정해"라는 암묵적 동의를 요구하는 화법 구성이어서 전자의 "너 휴가 갈래" 보다 설득력이 높아진다.

그럼 이제 의견대립이 가장 많은 휴가 장소 선정 시 유용한 팁을 알아보자. 미리 일정을 정해 먼저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면 효과적이다. "내가 이번 휴가는 동해안으로 2박 3일 계획을 짜보았어! 우리가 승합차를 빌려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7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영덕에서 대게를 먹고 강릉 경포해수욕장으로~"라고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는 제주도 가자"라고 장소만 의견을 낸 사람보다 설득력이 높아진다. 또한, 휴가지에서 가장 얼굴을 붉히는 것이 바로 바가지요금이다. 특하니 바가지요금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숙소 요금이다.

휴가지에 도착을 해서 미리 숙소를 예약해 놓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숙소를 즉석에서 구해야 할 때 가격을 흥정하는 유용한 방법이 있다.

"방 있어요?" 보다 "방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방 있어요?" 물어보는 것은 "방이 없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라며 숙소 주인이 갑이 될 수 상황을 연출할 수 있지만 "방이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비싸면 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되레 손님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숙소요금이 바가지요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요금을 들고 "와~ 너무 비싸다"라고 놀라면서 혼잣말을 한 뒤 주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게 뭐가 비싸요?'라고 주인이 화를 내면 그곳은 바가지요금인 것일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땀 땀에 가도 다 그래요 그럼 얼마까지 해드릴까요?"라고 말을 하면 이 집은 평상시보다 비싸게 받고 있어 요금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번 휴가철에는 유용한 휴가스파치로 즐겁고 알뜰한 휴가를 즐겨보자.

임찬수식스파치학원 원장



산타라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6. 8.>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백호산악회	8/10(수)	거창 수송대	010-5621-4007
	한울림산악회	8/14(일)	영월 동강	010-9328-6091
	대오산악회	8/14(일)	지리산 거림계곡	010-8557-0479
	연포산악회	8/14(일)	문경 도장산	010-3832-5971
웅호동	약천산악회	8/17(수)	함양 기백산	010-4655-4370
	금강산악회	8/7(일)	밀양 백운산	010-3865-9051
	여명산악회	8/7(일)	지리산 구룡계곡	010-3554-4392
	웅신산악회	8/14(일)	밀양 구만폭포	010-4657-7051
문현동	여남산악회	8/14(일)	경호강 레프팅	010-4553-6615
	신선산악회	8/14(일)	무주 칠연계곡	010-6520-0167
	해월산악회	8/21(일)	통영 비진도	010-3580-7558
	글로브산악회	8/21(일)	밀양 북암산	010-8287-1192
우암동	우일산악회	8/7(일)	산형 거림계곡	010-3557-2847
	우남산악회	8/21(일)	거창 용추계곡	010-7520-6666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8/14(일)	지리산 한신계곡	010-3178-3065
	원부리산악회	8/21(일)	무주 레프팅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오륙도 스카이워크

김형석

하늘을 감는 자유
블루오션 오대양 열고소통으로 사람으로
서로 손잡은 인간미 펼쳐새 지평 굳건히 잇는
영원한 희망, 해파랑길 770km 넘어한겨레 흔 백두산에 올라
통일햇불 밝히는 원류.

김형석 시집 '고사목의 새소리' 가운데



각박해진 지하철 풍경에 씬쓸

요즘 생활하다 보면 세대 간의 교육관을 반성하게 되는 일상을 종종 접할 때가 있다. 나는 아침 8시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까지 출·퇴근하는 60대의 여성이다. 어느날 70대 후반 좀 되 보이는 여르신이 목발을 짚고 불편한 몸으로 빈 좌석을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었다. 바로 일어난 까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등교시간이어서 젊은 대학생 여러 명

이 앉아 있기에 누구라도 양보하겠지 싶었다. 그 순간 그 할아버지는 경로석으로 향해 가셨고 마침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자리를 양보해 주는 모습에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버스타나 지하철에서 종종 느끼는 일이지만 요즘 20~30대 젊은 세대들은 나이든 분들보다 더 파곤에 지친 모습으로 휴대폰에 푹 빠져 내려갈 곳에서 하급지갑 내리는 경우

를 자주 보게 된다. 젊은 세대보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윤리와 도리 그리고 인정과 법도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다보면 노인들은 경로석을 이용해야하고 일반석은 젊은이들이 양보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다. 이모든게 공부만 우선시 하는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반성하게 만드는 사회의 슬픈 현실에 가슴 먹먹한 답답함을 느꼈다.

손지아(우암동)

남구도서관 소식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책 검색, 행사 등 확인

남구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http://library.bsnamgu.go.kr/Mobile>)를 구축하고 지난 8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검색, 행사강좌 및 수강신청, 희망자료 신청, 도서관출초화, 모바일 책이음 회원증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607-6578

우체국 '나눔'·'만원'의 행복을!

우체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편 상품을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문의 : 남부산우체국(620-9050~1) 및 우체국보편 고객센터(1599-0100)

2016년 하반기 강자 수강생모집 (☎607-6562)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모집인원	접수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노자, 행복을 말하다>	8. 19~9. 23(5회) 금 10시~12시	50명	8. 2(화) 13시부터 남구도서관 홈페이지
2016년 인문독서아카데미 <한국 전통 건축과 풍수사상>	9. 30~10. 28(5회) 금 10시~12시	50명	
2016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눈송이도시자연경관대비판>	9. 7~11. 4(16회) 수, 금 10시~12시	40명	

8월 주말의 영화상영 안내 (☎607-6574)

영화제목	장르	상영일자	상영시간 및 장소
도라에몽-스텐비미미	애니메이션	8월 7일	매주 일 오후2시, 남구도서관 2층 시청각실
머나먼 세상속으로	애니메이션, 판타지	8월 14일	
노아의 방주-늑대소년	애니메이션	8월 21일	
일곱남자	애니메이션, 모험	8월 28일	

구분	나눔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대상	만15~65세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만15~65세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내용	사망시 200만원 지급	재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입원일시료보의 90%(5,000만원 한도), 상해 통원의료비 1회당 20만원 한도(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보험료	부담없음(무료)	70% 본인 부담
보험 기간	1년, 3년	1년, 3년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본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증본

기사제보받습니다

☎607-4075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6. 7. 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남구 보건소	대연동	기간제공무원외사(24개월)	1명	16. 07. 21 ~ 07. 28	연봉 5,434만원	051-607-4102
파로스식품(주)동명대학 협력관지점	웅당동	구내식당 급식조리사	3명	16. 07. 20 ~ 채용시	시급 6,030원	051-625-7246
부산동부신협	대연동	금융권서비스무원	1명	16. 7. 19 ~ 07. 27	연봉 2,040만원	051-643-3535
㈜베에스시	감만동	냉난방설비조작원	2명	16. 07. 21 ~ 08. 05	연봉 2,500만원	054-285-9513
디케이슬루션	감만동	통신장비설치원	1명	16. 07. 21 ~ 채용시	연봉 1,800만원	051-628-2357
지유씨엔에스	대연동	빌딩전기원	1명	16. 07. 20 ~ 채용시	연봉 2,900만원	02-2077-6075
㈜디엘종합건축사사무소	대연동	건축설계사	1명	16. 07. 20 ~ 08. 25	연봉 3,500만원	051-637-7420
㈜씨타이프	우암동	마케팅, 광고기획사무원	1명	16. 07. 20 ~ 07. 29	연봉 2,000만원	010-2857-0700
㈜경인석유	웅당동	특수차 운전원	1명	16. 07. 19 ~ 채용시	연봉 3,000만원	051-626-2426
부산성모병원	웅호동	소방관리기술자	1명	16. 07. 19 ~ 채용시	연봉 2,400만원	051-933-7031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8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이용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 접수(선착순 마감)
■문의 : ☎607-4512(남구 평생교육과)

지역	프로그램명	대상(인원)	운영기간	교육시간	본인부담
대연1동 (☎607-6602)	나만의 힐링캠프 -캐들, 석고방향제	가족단위 (20명)	8. 1. ~ 8. 29.	월 10 : 00 ~ 12 : 00 (4회)	2만5천원
대연3동 (☎607-6642)	말 잘하고 글 잘쓰는 토의, 토론(구술)	초등 3~6년 (20명)	8. 1. ~ 10. 31.	월 15 : 30 ~ 17 : 30 (12회)	교재비 1만원
감만1동 양지골 (☎607-6826)	밀반찬 창업요리	성인 (20명)	8. 3. ~ 8. 24.	수 10 : 00 ~ 13 : 00 (4회)	4만원
감만2동 (☎607-6843)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공예	성인 (20명)	8. 4 ~ 10. 27.	금 10 : 00 ~ 13 : 00 (12회)	4만5천원
문현4동 (☎607-6966)	생활 한자교실	성인 (20명)	8. 4. ~ 11. 24.	목 10 : 00 ~ 12 : 00 (16강)	1만원

■ 폭염 때 이렇게 하세요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3시) 외출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스포츠음료나 과일 주스로 수분을 유지하세요.
- 커튼이나 천으로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수시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시원한 물 뿌려주세요.
- 시원한 음식 특히 수분 많은 과일이나 샐러드 등 습소화하기 쉬운 음식 섭취하세요.
- 헬싱하고 밝은 색의 면 옷 입으세요.
- 콜로어르신, 아픈 사람, 폭염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체크하고 도와주세요.
- 폭염 대비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 두세요.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